테이블펫X프리디언 웹드라마 기획의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 말을 지겹도록 들어왔을 것이다.

특히 학업에 치이고 일에 치여온 20대들에겐 있어 유일한 버팀목은 바로 ‘믿고 의지할 수’있는 주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2년전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의 관계는 맥없이 무너져내렸다.

이전엔 사랑에 힘들어하고 인간관계에 지쳐갔지만, 이제는 관계로 인한 피로 그 자체마저 값비싼사치가 되어버렸다.

그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로 인한 상흔이 점차 복구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근 2년간의 고립된 삶을 겪어온 청년들에게 남은 상처의 후유증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과거를 잊자니, 여전히 끊겨진 인연들이 그립기만 하고, 사회에 발을 내딛고자 하지만, 그동안 이룬게 없고 남들보다 뒤쳐진다는 생각에 막막해 점점 더 숨어들 뿐이다.

이렇게 홀로 남겨진 사람들은 어느덧 혼자가 익숙해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도 마찬가지다. 주인공 수현은 치열한 헬조선의 취업경쟁에 허덕이고, 여자친구 유정 역시 고시 준비로 바빠 헤어진다.

그러던 어느날, 주원에게 어항 속 물고기 한마리가 찾아온다. 단순한 애완동물이라는 생각도 잠시, 옛 애인 유정의 취미가 물멍이었다는 사실이 생각난 주원은 고민 끝에 다시금 유정과 재회할 용기를 얻게 된다.

단순 드라마 속 가상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관계에 의해 상처받지만, 한편으론 다시 관계 덕분에 치유받고, 나 자신이 누군가에겐 여전히 의미있는 존재임을 확인받는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완전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

이 것이 모두의 가치를 일깨우는 우리만의 방식이다.